

조계종 조계종 도의국사

추모다례 열린다

5월 30일 조계사서

조계종 조계종 도의국사의 수행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 다례제가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오는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추모다례'를 봉행한다.

이날 다례는 회의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도의국사 행장 소개, 추모사, 청법제, 법어, 헌향, 헌다, 종사영반, 헌화,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도의국사는 8세기 신라에 최초로 선(禪)을 전하고 조계종의 원류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을 개창한 스님이다. 선덕왕 1년(780년) 당나라로 유학해 지장의 제자가 되어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헌덕왕 13년(821년) 귀국해 선을 전했으나 크게 확산되지 못했다. 이후 40여 년간 설악산 진전사에서 수행하다가 제자인 염거 스님에게 법을 전하고 입적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기일인 음력 5월 2일 다례제를 봉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진각종 통리원·교육원

제2기 집행부 출범

대학원장 경당·기획실장 호당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5월 20일 총인원 통리원장 정점실서 진각대학원장과 통리원, 교육원 부·실·국장 등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제 29대 2기 집행부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제 10대 진각대학원장에 교육원장 경당 정사(행원심인당 주교)를, 통리원 기획실장에는 사회부장 호당 정사(실상심인당 주교)를 각각 임명했다. 또한 진각대학원장은 교육원장이, 기획실장은 사회부장이 겸직하게 됐다. 이외에도 교육원 교무부장 서리 겸 진각대학원 교학처장 서리에 교무국장 법경 정사(시복심인당 주교)를 임명했다. 현 통리원 총무부장 겸 총인 예정실장인 덕정 정사(밀엄심인당 주교)는 유임됐다.

또한 이날에는 국장급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신인 교육원 교무국장에는 수각 정사(밀각심인당 주교)가, 통리원 기획국장에는 재무국장 수혜 정사(능인심인당 주교)가 겸직한다. 사서국장에는 혜진 정사(관음심인당 주교), 전산국장에는 보당 정사(장엄심인당 주교), 사회국장에는 법공 정사(명선심인당 주교)가, 총무국장에는 정일 정사(대원심인당 주교) 정사, 건설국장에는 진광 정사(선정심인당 주교), 교법연구국장 해당 정사(혜원심인당 주교)는 유임됐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청소년 마음치유 전국서 만난다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마음등불'

서울·경상 등 8곳서 확대 시행

한마음과학원 등 수련원서 진행

오는 10월까지 430명 대상으로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학습력 저하 등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소년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서울, 강원, 경상, 전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무기력, 우울증, 자살, 학습력 저하 등의 청소년 문제를 치유·예방하고 자존감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인 '청소년 마음등불'을 보급·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청소년 마음등불'은 포교원 청소년 인종프로그램으로, 참가 단체는 금강선원, 한국명상상담학회(명상상담연구원), 한마음과학원, 봉인사, 행복선원 등이며 각 기관 명상센터나 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10월까지이며 전국 중고등학생 430여명을 대상으로 △집중명상 △명상상담 △감정조절 △상담이 있는 명상 △심성개발 △힐링캠프 등 참가 단체에서 특화시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강선원이 진행하는 '청소년 10분 집중명상'은 20년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

청소년 마음등불 전국 시행 장소

일정	지역	센터	인원	프로그램 명
6/21-22	경기 남양주	봉인사 수련원	40	상담이 있는 명상
7/10-11	전라남도	명상상담센터 섬	20	감정조절 프로그램
7/12-13	경남 거창	지혜로운 마음 명상상담센터(죽림정사)	20	청소년을 위한 명상상담
7/19-20	광주광역시	비로자나 명상상담센터	30	청소년을 위한 명상상담
7/26-27	광주광역시	비로자나 명상상담센터	20	청소년을 위한 명상상담
7/26-27	충청북도	광명선원 수련원(한마음과학원)	30	청소년 심성프로그램 꽃을 피우는 나무
7/28-30	서울	금강선원	50	집중명상
8/01-02	부산 중구	행복한 명상상담센터(미타선원)	20	청소년을 위한 명상상담
8/02-03	경남 진해	맑은 명상상담센터	20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명상상담
8/09-10	경남 진해	맑은 명상상담센터	20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명상상담
8/13-14	부산 중구	행복한 명상상담센터	20	감정조절 프로그램
8/11-13	서울	금강선원	50	집중명상
8/16-17	경기 이천	행복선원	30	힐링캠프
8/23-24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20	감정조절 프로그램
9/13-14	경기 부천	마인드힐링명상상담센터	20	감정조절 프로그램(부모와 함께)

로 불교 명상법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집중력·지구력·자기조절력을 기르는데 큰 효과를 거뒀다. 하나의 사물에 집중해서 응시하거나 소리를 듣고 외우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응용해 청소년들이 쉽게 집중명상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 방법을 시행한 중고등학생 5명을 대상으로 가천의과대학에서 훈련 전·후 뇌 모습을 촬영한 결과 안와전두엽이 뚜렷하게 활성화된 것이 관찰됐다.

명상상담학회와 명상상담연구원은 명상상담 및 감정조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상관법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 어딘가 자극을 받은 사건을 명상을 통해 떠올리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 내면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봉인사는 '상담이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공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주의와 연결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으며, 관점에 따라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프로그램 안 내를 통해 스스로 알아가게 한다. 이 밖에 행복선원은 '힐링캠프'를 운영, 힐링체조, 힐링박수, 만다라명상, 잣나무 숲 명상 등 다양한 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포교원은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학교생활은 물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미래관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 해부터 청소년 마음등불을 운영해 문제 부 자체평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으로 입지를 굳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진제 스님 화합 示衆...동화사 사태 일단락

21일 동화사 산중대회, '성토' 대신 '원용' 선택

총림 차기 주지 인선을 놓고 내용을 빛은 팔공총림 동화사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진제 스님(조계종 종정)이 차기 주지 인선부터는 주지와 임회, 각 문종의 의견을 존중해 처리하기로 유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진제 스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중을 5월 21일 열린 '9교구 정상화를 위한 사부대중 산중대회'에서 방장 시중(示衆)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진제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 성우 스님이 봉독한 시중에서 "앞으로 팔공총림 살림 제반에 대해서는 신인 주지인 덕문 스님과 임회 위원들에게 맡기고 초연할 것"이라며 "차기 주지 추천은 주지와 임회 위원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인 주지 덕문 스님을 중심으로 원용 화합된 모습을 보여달라. 팔공총림

을 가장 모범적인 도량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산중대회는 성도가 아닌 화합의 메시지가 주를 이뤘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 발원의식들도 함께 진행됐다.

같은 중심에 있었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오늘 방장 스님의 시중은 팔공총림 정상화를 위한 대중들의 열망과 원력이 모여 나온 것"이라며 "입기가 끝나더라도 총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중대회 참석 대중은 △총림의 제반 운영은 대중공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어른을 잘못 모신 당사자들은 참회하고 자숙하라 △산중대회를 계기로 원용화합된 총림으로 거듭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팔공총림 동화사의 산중대회에 방장 진제 스님의 시중 발표와 사중의 수용으로 성토 대신 화합으로 마무리됐다. 차기 주지 인선을 놓고 빛어진 내용이 일단락됐다.

서울교육감 후보들, "학교 내 종교편향 안돼"

고승덕·문용린·조희연 후보, 불교계 좌담회서

불교계가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좌담회에서 후보자 전원인 교내 특정종교교육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승덕·문용린·조희연 등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3명은 5월 22일 불교생명윤리협회(대표 홍선)·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이수덕)·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화단(상임단장 진관)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승덕 후보는 "종교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으로 학생 역시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특정종교과목이 있을 시 대체 과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대안으로 학생들의 개별 종교를 기초로 학교기피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시했다.

문용린 후보도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을 반대했으며 종립학교 종교교육 폐지와 함께 철학 과목과 유사한 일반종교 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좌로부터 고승덕·문용린·조희연 후보) 좌담회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목 도입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광고 사건에서 보듯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은 많은 문제를 발생한다"며 "하지만 철학 과목 개념의 일반종교 과목 설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후보로 꼽히는 조희연 후보도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같이했다.

조 후보 역시 배정기피신청제 도입을 주장했으며 종립학교 내 타종교 동아리 활동을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내려놓고 싶은가, 청년출가학교로 오라

조계종 교육원, 6월 28일부터 미황사서 출가학교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안락하지 못하다. 대학 입시, 취업 등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생긴 비용으로 청춘은 저당 잡혔다.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3포 세대' 까지 생겨났다.

경쟁과 불안이 공존하는 20대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청년출가학교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과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8박 9일 간 해남 미황사에서 '2014 청년출가학교'를 개최한다.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청년출가학교는 올해에도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도법사로는 법인 스님(청년출가학교장),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만초 스님(해

남사 주지), 가섭 스님(교육국장), 원영 스님(교수이사리), 재마 스님(중앙승가대 박사 과정)이 참여하며, 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의 스스로 자기 비전과 희망을 찾을 수 있게 이끌 예정이다.

올해로 3회째... 20대 청년 대상 용타 스님, 조성택 교수 등 강의 지도법사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6월 2~20일까지 남녀 40명 모집

교수진으로는 용타 스님(행복마을 이사장), 조성택 교수(교려대), 함돈균 교수(교려대), 박용현 CP(광고기획사 대표), 황광우 교수(철학자), 이종만 풍경소리 대표가

나선다.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의 강의는 둘러싼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파악하고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고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청년출가학교는 청년들이 출가를 삶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경쟁과 불안이 공존하는 현 시대의 청년들에게 청년출가학교는 출가를 자신의 삶으로 상상할 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영 스님은 "1, 2기 출가학교를 진행하면서 3명의 출가자가 나왔다"면서 "이번 출가학교에서도 20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청년출가학교는 20대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우편 및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모집인원은 남녀 40명이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문의 (02)2011-1816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世界佛教 法王廳 初代法王 一鵬 徐京保 尊者 追慕大祭

社團法人 大韓佛教 統合禪教宗 創宗 2週年 大法會

귀의삼보하옵고,
 온 인류의 스승이시며 근래 한국불교의 큰 스님이신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 법왕 일봉 서경보 존자님의 탄신 100주년 다례제 및 원적 18주기 추모 대법회와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창종2주년 기념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전 종도 및 문도 스님들께서는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일봉 서경보 존자님 큰 가르침을 되새기고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의 창종 2주년을 기념하여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인류평화 실현을 기원하는 뜻 깊은 법석을 빛내주시길 기원합니다.

일 시 : 불기 2558(2014)년 6월 6일(음력 5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
문의 : 041)566-2277~2278, 010)7311-2277 / 팩스 041)566-6141

증 명 : 용암. 명종. 법운. 화엄
 봉행위원장 : 삼주 (010-7191-0086)
 추진위원장 : 지현 (010-3610-7462)
 봉행위원회 : 총무원 임직원, 중앙종회의원, 전 종도 일동

社團法人 大韓佛教 統合禪教宗 奉行委員會